

인구 갈수록 감소 광주·전남 고령화도 급속 진행

농·어업 생산력 현안 문제로

통계청 발표, 소득 1억이상 농가는 3만2000호로 증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지역의 농·어업 생산력 감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광주·전남의 전체농가는 17만6650가구에 농가인구는 40만3185명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550가구(0.3%) 늘고, 농가인구는 332명(0.1%) 줄었다.

농도인 전남의 농가는 16만4000가구(전체 농가의 14.4%)로 경북(19만6000, 17.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의 전업농가는 9만6644가구(58.6%)로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지만, 겸업농가는 6만7604가구(42.4%)로 전년에 비해 3.3% 증가했다. 가구원수별 농가는 2인가가 8만7402로 53%를 차지했으며 1인가구(22.2%), 3인가구(12.2%) 순이었다.

영농형태별로는 논벼가 7만632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채소·산나물(4

만7227가구), 과수(1만7841가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채소·산나물 생산의 17.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전체 어가의 36%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수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전남의 어가는 지난해 12월1일 기준 2만1747가구, 어가인구는 5만293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와 0.1% 늘었다. 전국 어가 대비 비율은 전남이 30.9%로 가장 높았고 제주(24.1%), 충남(11.5%) 순이었다.

어업형태별로는 어로어업이 1만1491가구였으며 양식어업도 10만256가구로 전체 양식어업가구 중 63%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농어가의 고령화와 소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가 경영영주의 경우 10명 중 4명가량은 70세 이상이고 평균연령은 65.4세로 집계됐다. 농가, 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4명으로 전체 가구 2.8명보다 0.4명이 적었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7.3%로 전체 고령화율(12.2%)의 3

농어가 고령화율



배에 이르고 있다.

소가족화율은 농가가 49.8%, 어가는 53.9%로 전체 가구(전가구체 가구의 2인 가구 비중은 25.7%)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고소득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원 이상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2.8%(3만2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8.1% 증가했다. 5000만원~1억원 농가는 5.8% 늘었다. 1억원 이상에서는 축산 농가가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포츠·아웃도어 의류 인기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스포츠 매장서 한 고객이 슬림 디자인의 운동복을 살펴보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운동복은 물론 평상복으로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아웃도어 의류가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패션·의류업계 숨통 여름상품 조기 출시

패션·의류업계가 봄 상품을 대폭 줄이는 대신 여름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여름상품 조기 출시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져 경기불황에 허덕이던 패션·의류업계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20일 패션·의류업계에 따르면 세정의 라이프스타일패션 전문점 웰메이드는 최근 여름상품의 출시를 2~3주 가량 앞당겨 전 브랜드에 걸쳐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웰메이드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인디안'은 여름상품 판매 실적이 지난해보다 162% 올랐다. 특히 봄 날들이 철과 맞물려 여름 점퍼를 비롯한 갈옷 류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운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도 지난 3월 한 달간 여름상품의 판매율이 전체 매출의 약 20% 차지했다.

신세계 인터넷서점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 '갭'은 3월 한 달간 반소매 플로서츠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 캐주얼 브랜드 '지컷'은 지난해 블라우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올랐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늙어간다

연령별 인력구성비 20~30대 줄고 50~60대 늘어

청년층 취업 꺼리고 장년층 은퇴 후 재취업 많은 탓

중기청, 7천곳 실태조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점점 고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20~30대 비율은 줄고 50~60대 비율은 늘었다.

20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조사 대상인 전국 7000개 중소제조업체의 20대 인력 비율은 12%다.

2002년 22.2%였던 20대 인력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대 비율은 33.4%에서 31%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인력 가운데 50대 비율은 11.5%에서 19.9%로 뛰었다. 40대(29.8%→33.4%)와 60대 이상(2.9%→3.6%) 비율도 다소 올라갔다.

50대 이상 직원 비율이 30% 이상인 업종은 식료품(38.1%), 가죽·가방·신발(37.6%), 음료(36.2%), 목재·나무제품(33.4%), 펄프·종이 제품(31.5%), 코크스·연탄·석유 정제품(30.6%) 등이었다.

2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1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16%), 의약품·의약품(15.1%), 의복·의복 액세서리·모피(14.5%)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된 2012년 기준 중소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CEO 연령대는 50대가 45.4%로 가장 높고 이어 40대(33.5%), 60대(11.9%), 30대(6.6%), 70세 이상(2.2%), 30세 미만(0.4%) 순이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층이 안정성이나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만,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장년층은 은퇴하고 중소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청년 인력 부조화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윈도XP 지원 종료

사용자 27% "무대응"

안전 불감증 심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8일(현지시각) 윈도XP에 대한 정기적 보안패치 등의 기술 지원을 끝냈지만 윈도XP 사용자 절반은 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글로벌 보안업체 어베스트가 이달 초 윈도XP를 사용하는 자사 개인·기업 고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윈도XP 사용자 27%는 MS의 지원종료 계획을 알면서도 운영체제(OS)를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최신 OS가 깔린 새로운 PC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어베스트 고객 2억여 명 가운데 윈도XP 사용자는 약 5000만 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48%)은 윈도XP 보안 취약점을 노린 신종 공격이 당장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윈도8.1 등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용자는 15%, 새로운 PC를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용자는 5%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용자는 별도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답하는 등 윈도XP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지수 조정시기 저PER 대형주·증권주 관심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상단에서 정세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지수관련 대형주 보다는 지수의 영향이 낮은 소형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들어 소형주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코스닥지수도 5600 인트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머징국가의 외환시장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간 수익률갭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 경제지표, 엘런 연준의 장의 발언, 베이비붐 등이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저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 16일 엘런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동안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초저금리 유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됐으며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소규모 양적완화 정책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호적인 대외여건속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된다면 펀드판매에 따른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에도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상단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0포인트 돌파시 현금화 전략도 유효하지만 지수조정시 저PER 대형주 및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저PER 증권주에 대한 관심과 현지수대에서는 저평가 소형주의 추가적인 순환매적 상승을 염두해둔 매매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최근 소형주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듯이 이미 시장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종목군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장>

질!생겼다 T전화

새로운 전화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스팸인지 아닌지 미리 알려주고
내 연락처에 없어도
통화버튼만으로 어디든 연결되는 전화
생각해보면 진짜 생겼어야 할 전화가
이제 생겼습니다

걱정!방졌다
LTE A

안심통화
길러온 전화가 스팸인지 아닌지 스팸이면 어디서 온 전화인지 받기 전에 알려주는 기능

T114
인터넷에서 번호 찾는 번거로운 없이 연락처 검색창에서 바로 찾아 연결/전화번호와 위치까지 검색 가능

겉기편한 통화면
내가 자주 가는 번호를 자동으로 모아주고
이메일 연락처로 바로 통화연결